

제주 화교사회의 형성과 생활양상에 관한 연구*

— 초기 입도 과정과 일제 강점기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

양 세 영**

국문요약

본고는 제주화교의 기원과 초기 이주과정, 일제 강점기의 생활양상을 조명함으로써 지역화교 연구의 지경의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사실은 첫째, 첫 이주자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목공과 석공 등 기술 노동자였으며 이후 소규모 포목상과 잡화상이 도래하였다. 이주 시기도 1909년 이전으로 최소 112년 전부터 제주에서 화교가 거주하여 왔다. 여건이 좋은 개항도시를 떠나 원격지인 제주까지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추진한 것은 상당한 개척정신의 산물로 평가된다. 둘째, 1930년대 초반에는 100명에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는 등 화교사회가 활성화되었으며 제주지역 주민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포목점과 음식점 영업, 그리고 주요시설 건축과 지역개발 공사 참여를 통해 제주지역 사회에 경제적인 기여를 하였다. 셋째, 1931년 만보산 사건과 1937년 중일전쟁과 같은 정치사회적 격변기에 제주화교 사회는 타격을 받았고, 특히 중일전쟁은 결정적 충격 요인으로 작용하여 상당수 화교가 본국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이 시기 잔류 제주화교는 친일을 강요당하는 등 제주지역 주민과 동일한 고통을 공유하였다.

본 연구가 남긴 과제는 향후 제주화교의 주요 인물과 상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보다 생생한 생활사가 복원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연구범위도 해방 이후 제주화교의 활동으로 확대하여 이 시기 화교와의 역사적 연결성을 점검하는 것이 요청된다.

주제어 : 제주화교, 일제강점기, 생활양상, 중일전쟁, 이주

* 본고는 2019년 제주중국학회 제주화교사 연구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와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한 『제주화교 역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연구 보고서』(2019년 12월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발간)을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으며, 세한대학교의 연구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세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국내화교는 1882년 임오군란시 파견된 청군의 군역상인을 출발점으로 하며 이후 인천, 부산, 원산 등 개항장에 조계지를 확보하고 거점을 확대하였다. 전국 주요 도시로 화교의 이주가 확산되는 가운데 1910년에는 1만 명을 넘어섰고 중일전쟁 등 변동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의 내륙지역은 물론 도서지역까지 화교가 이르러 거주하였다.

그동안 국내화교에 대한 연구는 민족 정체성과 초국가성, 집단이주(diaspora) 등과 관련된 인류학 및 사회학적 측면, 화교이주의 배경이 되는 근대 동북아 역사와 관련한 근대사 및 국제정치학적 연구, 무역 및 상업활동과 관련한 경제 및 경영학적 측면, 중국요리와 풍습 등과 관련한 문화학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화교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화교자본 유치 등 정책적 관점에서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송승석, 2010: 165). 특히, 지역화교에 대한 연구는 차이나타운 개발 등과 같은 지역 및 관광개발 정책 차원에서 관심이 고조되어 화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많고 비교적 자료가 풍부한 인천, 부산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대 이후 한중교류 증가와 다문화 사회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대구, 마산, 군산, 전주, 강원도, 목포 등으로 연구가 확산되었으며, 대중 경제관계에서 화교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지역의 경우에도 신의주, 원산 등에 대한 연구가 일제 강점기의 생활 양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¹⁾

화교사 연구에 있어 정책적 접근은 현실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근현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 왔지만 소외와 배타의 대상이었던 화교사회를 지역사(地域史)의 한 영역으로 포용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는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글로벌 시대에는 더욱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양세영, 2020: 299).

내륙관점에 보면 국내의 대표적인 격오지라 할 수 있는 제주는 1936년 기준 93명의 화

1) 지역화교에 대한 주요 연구 사례로서 인천화교는 김영신(2003; 2005), 이옥련(2005), 이창호(2008), 이정화·송승석(2015), 이정희(2008; 2017) 등이 있으며, 부산화교는 김승(2014), 조세현(2013), 마산화교는 문은정(2002a; 2002b), 대구화교는 이정희(2005), 군산화교는 김태웅(2010), 김중규(2010), 전주화교는 이화승(2006), 강원도 화교는 이정희(2017), 목포화교는 양세영(2018; 2019), 원산과 신의주 화교는 이은상(2017a; 2017b), 김태웅(2012) 등이 있다.

교가 거주하여 당시 동일 행정구역이었던 전라남도에서 목포, 광주 다음으로 화교인구가 많았던 지역이었음에도 그 동안 관심 부족으로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관광개발과 자본유치가 활발하게 추진됨에 따라 중국출신 이주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출입국외국인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가 1,557명, 대만국적자가 415명으로 지역인구 대비 화교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지역개발과 관광 등 정책차원만 아니라 현존하는 화교사회에 대한 이해와 바람직한 제주-중국 관계형성을 위해서도 화교역사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제주화교에 대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신재경(2000)과 문미라(2009)의 연구는²⁾ 제주화교에 대해 처음으로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제주 화교의 기원에 대한 오류 등 내용상의 문제점과 특히, 인구통계학적 기본연구가 결여되어 있어 아직 시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기본자료 연구보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면담연구에 치중한 결과로 보이며, 면담에 있어서도 복수 면담자간 및 면담과 자료간 교차 검증이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제주연구원(2019)이 발간한 “제주화교역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연구”는 인구통계적 관점에서 제주화교에 대해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연구의 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양세영·심규호·후림·신재경·김은영·김규태, 2019). 그러나 동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2019년까지 포괄적으로 제주화교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과제를 추출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형식적으로도 간략한 개조식 정책 보고서로서 제주화교의 역사적 사실을 엄밀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와는 거리가 있는 본질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1차적으로 이러한 선행연구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초기 이주과정을 시작으로 제주화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내 지역화교사의 영역을 확장하고 나아가 제주학의 지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기간의 경우 제주화교의 입도와 관련하여 대한제국 시기 일부(1909년)를 포함하여 해방 이전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제 강점기를 중심 대상으로 한 것

2) 신재경, 2000, 「제주도 華僑의 어제와 오늘」, 오사카 한국화교연구회 발표자료; 문미라, 2009, 「근현대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문미라(2009)의 논문은 신재경(2000)의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되었다.

은 본 고가 제주화교의 초기 이주와 정착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한데다, 해방을 분기점으로 제주화교 사회 간에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 제주화교의 상당수가 1937년 중일 전쟁이후 중국으로 귀환한 반면, 해방이후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피난 등의 이유로 국내외 화교들의 제주 이주가 늘어나 화교사회 구성원에 있어서 변동이 컸다. 아울러, 본 연구는 내용적으로 제주화교 사회의 형성과정과 생활양상을 연구범위로 하고자 한다. 동 범위에 대해 국내 전체 화교사의 맥락에서 제주화교가 갖는 공통적인 측면과 차별적인 요소를 검토하였다. 제주 화교사회 형성과정과 생활양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 것은 그에 대한 규명이 제주화교 연구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할 과제이며 특히 제주화교의 효시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생활양상은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화교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 경제활동이 갖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생활양상을 분석하면서 제주화교 사회에 변동을 가져온 1927년 배화운동 및 1931년 만보산 사건, 1937년 중일전쟁, 해방전까지 전시체제까지의 상황과 그로 인한 영향은 별개의 장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는 이들 변동요인이 제주 화교사회 구성은 물론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였기 때문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문헌연구로서 “濟州道誌” 등 기본 지역사료(史料)를 검토하였고, 제주화교의 기본 인구통계 확보를 위해 “조선총독부통계연보(각년도)”, “조선국세조사보고(1930년, 조선총독부 발간)”, “생활상태조사(1929년, 조선총독부 발간, 제주편)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이루어진 국내화교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논문자료를 점검하였다. 문헌연구와 통계자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일신보, 부산신문, 제주지역신문 등 관련 언론 기사를 참고하였고, 아울러 관계자 면담방식을 활용하였다. 일제강점기 화교에 대한 자료는 주요 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특히 제주화교 관련 자료는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면담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데 기여한다. 면담조사는 사전조사에서 선정된 5명을 추적하여 직접 면담또는 전화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3명은 선대(先代)가 해방 이전에 제주에 도래한 2-3세 화교이며, 모두 원적(原籍)이 산동성이다. 다른 2명은 해방 이후 도래한 화교의 2세로서 현재 제주에서 중국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은 선행연구에 참여한 면담대상자 중 연결이 가능했던 사람들로서 새로운 조사 내용과 함께 기존 진술내용을 검증하기 위한 면담이 시행되었다. 1차적으로 2019년 5명 모두 직접면접 방식으로 면담을 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 설문방식으로 추가 면담을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 나오는 면담내용은 검증결과, 일부 오류가 있어 재확인 후 필요한 부분은 본고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오류는 면담 대상자의 부정확한 기억과 인식, 면담자와 면

담 대상자간의 소통시 오해, 면담자의 과잉해석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II. 제주화교의 초기 형성과정

1. 최초 이주와 그 의의

제주화교에 대한 첫 공식기록은 1909년 3호(戶)에 5명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선총독부, 1909: 170). 이는 제주역시 다른 개항도시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화교가 이주해 와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1909년은 군 단위까지 외국인 인구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해로서 그 전부터 제주도에 화교가 이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전국 화교는 1905년 이후 본격적인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국적인 확산이 이루어진데다, 초기 제주화교의 유입 창구 중 하나였던 목포도 1905년에 화교인구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어난 이후 1906-1909년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양세영, 2018: 89), 제주역시 이러한 화교 인구의 추세적인 특징에서 보면 화교의 기원이 기록에 나타난 1909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화교가 처음 제주에 입도한 시기에 대해 문미라(2009: 4)의 연구를 비롯하여 1920년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동 연구는 구술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시 제주 화교사회에서는 이런 인식이 통설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제주 화교 소학교의 설립경위를 기록한 목관자료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목관 자료의 첫 구절은 “溯我僑胞旅居濟州經有三十餘年之歷史(우리 교포가 제주에 와서 거주한 지 30여 년의 역사가 지났는데)”로서 화교 소학교가 1951년 설립되었고 목관기록은 1957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3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20년대가 된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1909년 이후 제주화교는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1926년에는 87명에 이르고 있었는데도 1920년대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1950년대 당시 화교 구성원과 일제 강점기 화교사회 간에 역사적 단절이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³⁾ 이러한 단절현상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초기 화교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수 중국으로 철수한데 비해 1950년 한국전쟁 중 제주에 기착한 해상호(海祥號)의 양낙산 일행 50여명⁴⁾이 이후 화교사회의 주류를 차지함

3) 목관자료에는 “民國三十八年我國大使駐韓濟州始有中華商會之名義(중화민국 38년(1949년) 우리나라 대사가 한국에 주재하면서 제주에 中華商會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로 언급되어 일제강점기에 존재했던 제주 중화상회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기록상으로 화교가 제주에 처음 이주한 해가 1909년 이라는 사실은 개항도시인 청진(1908년),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신의주(1906년), 내륙의 주요 도시인 대구(1905년) 등과 비슷한 시기에 화교가 진출하였음을 보여준다.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 원격성과 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는 예상과는 달리 화교의 진출이 비교적 빠른 시기에 이루어진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제주는 국내 도서(島嶼)중 거제도와 함께 가장 먼저 화교가 유입된 곳이기도 하다. 1909년 당시 행정구역상 동일지역이었던 전남지역에서도 제주는 호남 최초로 화교가 도래한 목포, 영산강으로 통한 수운이 발달하여 핵심 상업지역 이었던 영산포 다음으로 화교의 이주가 빨랐던 지역이었다.

이렇듯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지리 및 교통 상의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화교가 제주까지 이주한 것은 기본적으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가 경제 침탈을 위해 제주지역을 개발함에 따른 상업 및 인력 수요가 증가한데 연유한다. 아울러 초기 제주화교들이 갖는 개척정신과 강한 기업가 정신에 기인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⁵⁾

2. 제주 초기화교의 구성과 이주배경

1882년 이후 화교들은 먼저 상업활동, 특히 포목상과 잡화상으로 국내에 진출하였으며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 음식업 등으로 확대되었고, 이어 건설 및 공업 노동자와 농업 종사자 등의 이주도 이루어졌다(김태웅, 2012: 82). 이러한 국내 화교의 일반적인 이주 양상과 달리 제주화교는 1900년대 초반 목공, 석공 등 건축기술을 가진 자들이 먼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는 1905년 을사늑약 전후로 1906년 일본식 경찰제도 도입으로 제주경찰서 및 3개소의 주재소 설치, 1906년 재판소 설치, 1907년 제주관립보통학교 설립, 1912년 해안 일주도로 개설공사 등 근대식 건축수요가 증가하였다(제주도, 1993: 320-324). 면담자(허00)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수요 증가로 일본인과 계약에 의해 저임금과 근대식 건축시공의 경험을 가진 중국인 목공과 석공들이 제주에 입도하였다고 한

4) 양낙산 일행의 제주 기착에 대해서는 제주신보, 1950년 8월 17일자에 자세히 나오며, 본 연구의 면담대상자였던 제주화교협회장, 감사장 등 현재 화교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양낙산의 후손이거나 일가다.

5) 기업가정신은 창업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찾아 모험을 감행하는 정신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덕훈, 1997, 「화교기업의 기업가적 특성과 문화」, 『생산성논집』 11-2, 273-274쪽.

다.6)

면담자(왕00, 허00)에 진술에 의하면 이들 노동자들은 단신출가자(單身出家者)로서 제주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연과 혈연 등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또는 국내 내륙 화교를 지속적으로 제주에 이주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주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 수요 증가로 마포를 중심으로 한 포목업, 중국 음식업 등 새로운 사업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상인들이 이어서 진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주인구는 을사늑약 이전인 1904년 86,189명에서 1907년 111,103명, 1920년에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세를 보여, 상업상 전망이 밝아 보이자 내륙 화교들이 본격적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양세영외, 2019: 15).

3. 제주화교의 유입 경로

국내화교는 1882년~1910년 까지 무역상점인 동순태 등 광동성 출신 중심의 남방화교가 주류를 차지했으나,7) 1900년대 들어 산동성 출신이 점차 늘어나 1920년대 이후에는 압도적인 비중인 9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남방화교는 상해~인천으로 이어지는 해로로 이주하였고, 산동 화교는 산동성 지부(芝罘)항(현재의 연태시)에서 인천을 통해 입국하는 것이 주요 이주 경로였다.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내륙교통이 불편하여 인천에서 연안해운을 통해 개항장에 진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기존 해안을 통한 유입경로 외에 인천에서 육로(철도)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만주 안동을 통해 이주해 오는 등 다양한 경로로 이주가 이루어졌다. 면담자(왕00, 허00)의 진술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 제주화교 역시 대부분 산동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8), 유입경로는 1910년 이전에는 주로 산동성에서 인천-군산-목포 등 개항도시를 통해 제주로 이어지는 해로였다.9) 철도가 부설된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기존 해상경로 외에 인천에서 내륙

6) 1900년 대 초반 석공, 목공들이 제주에 이주하였으며, 그 중 당덕운(唐德雲), 장자미(張子美)는 실명이 전하는 초창기 제주화교로서 1908년 경 제주에 이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직업은 당덕운이 목공, 장자미는 석공이었다. 그들이 왔을 때는 이미 몇 명의 노동자들이 먼저 진출해 있었다고 한다.

7) 인접한 목포의 경우에도 1898년 조계지 경매에 참여한 유력한 화교상은 광동출신의 周鶴林이 인천에 설립한 의생성과 역시 광동성 출신의 譚傑生이 세운 동순태였다. 특히 동순태는 1885년 인천에 상점을 개설한 이후 서울에 본점을 두고 上海의 본점을 통해 무역으로 성장한 국내의 대표적인 화교자본이었다. 양세영, 2018, 「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 전기(前期, 1893~1924년) 목포화교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1권 제2호, 84쪽

8) 주로 산동성 황현, 래양현, 모평현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해방후 도래한 양낙산은 요령성 출신이지만 그의 선대는 산동성 내주현 출신으로 요녕성으로 이주하였다.

을 통해 목포나 부산을 경유하여 정기선으로 제주로 유입하는 경로도 추가되었다.¹⁰⁾

특히, 일제 강점기의 경우 목포가 화교들이 제주로 이주하는 관문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사례로서 목포화교 포목 도매상이 제주에 지점을 설치한 기록¹¹⁾이 있어 상업 네트워크도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목포는 거리적으로도 가까웠을 뿐 아니라 당시 행정구역상으로도 같은 전남권이었기에 타지역 보다 교류가 활발하였다. 전남-제주간은 목포 개항 전에도 범선이 왕래하였으며 1900년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인천의堀 상회가 목포를 기점으로 또는 기항지로 진남포, 경성(鏡城), 제주도간의 항로를 운영하였다(김정섭 옮김, 2011: 728). 1904년 까지 경보환과 경흥환이 인천-목포-제주를 운행하였으며 1911년부터 명령항로로서 공주환, 해주환, 통영환이 목포-제주를 월 9회 운항하였고, 1913년부터 광양환이 목포를 출발하여 산지, 한림, 모슬포, 서귀포 등 제주 내 대부분 항구를 기항지로 거쳐감에 따라 화교들이 제주 전체로 확산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양세영외, 2019: 16). 아울러, 목포-제주-부산 노선이 1911년부터 운행되기 시작하여 부산을 통한 화교의 유입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III. 제주화교 사회의 성장과 생활양상

1. 화교사회의 양적 성장과 지역 확산

제주화교 사회는 초기 도래기의 목공과 석공 등 노동자 외에 소규모 포목상과 잡화상, 음식업을 영위하는 화교들도 유입됨에 따라 1909년 5명에서 1936년 93명 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며 성장했다. 제주인구가 1910년 12만 명 수준에서 1920년대 이후 20만 명을 돌파하여 소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포목과 잡화상이 새롭게 이주한데 이어 1926년 제주 산지항 개발로 인해 중국인 단순 노동자의 유입도 확대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성장세는 1927년, 1931년 두 차례 발생한 배화(排華)사건의 영향으로 일시 주춤거리며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다시 회복되어 1936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을 고비로 해방 전 까지 감소세로 돌아섰다.

9) 해로를 통해 직접 제주에 도래한 사례로는 초기 목공인 당덕운과 면담 대상자 왕00의 부친(왕정춘)의 경우이다.

10) 인천에서 열차를 이용해 목포를 통해 제주로 이주한 사례로는 면담대상자 허00의 부친인 허경환의 경우이다.

11) 조선신문, 1926년 7월 17일자.

<표 1> 일제 강점기 제주화교 인구통계 동향

(단위: 명)

연 도	제주화교	전년대비 증감(%)	전국화교	전년대비 증감(%)
1909	5	—	6,568	—
1912	8	60	15,517	31.09
1913	14	75	16,222	4.54
1919	26	52.94	18,588	-15.10
1920	28	7.69	23,989	29.06
1923	38	35.71	33,654	9.17
1924	48	26.32	35,661	5.96
1925	59	22.92	46,196	29.54
1926	87	47.46	45,291	-1.96
1927	71	-18.39	50,056	10.52
1930	90	34.33	67,794	19.63
1931	70	-22.22	36,778	-45.75
1932	60	-14.29	37,732	2.59
1933	76	26.67	41,266	9.37
1935	92	9.52	57,639	16.83
1936	93	1.09	63,981	11.00
1937	46	-50.54	41,909	-34.50
1938	53	15.22	48,533	15.81
1939	45	-15.09	51,014	5.11
1940	43	-4.44	63,976	25.41
1943	32	-33.33	75,776	-8.33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43년은 『조선통계연감』

화교인구가 양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제주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36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상대적인 규모는 미미하여 1930년 기준 국적별 인구 비중을 보면 한국인이 99.4%, 일본인이 0.58%, 이에 비해 중국인은 0.045%로 나타났다.

<표 2> 제주도 인구중 화교의 비중추이

연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총인구
1909	77,672	258	5	77,935
1910	126,028	434	5	126,469
1920	200,584	723	28	201,326
1925	204,314	1,105	59	205,478
1930	198,304	1,163	90	199,577
1935	197,543	1,425	92	199,063
1940	207,514	1,355	43	208,915
1943	223,207	1,545	32	224,784

자료:1909~1940년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1943년은 『조선통계연감』(남조선과도정부 편)

초기 이주과정을 거친 후 1920년대 이후 화교는 제주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1927년 조선총독부 통계자료(표 3)에 의하면 당시 경제 중심지였던 성내, 서귀포, 성산포 순으로 진출이 이루어졌으며 제주 전 지역에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제주도 화교의 지역별 분포(1927년)

구 분	호수(호)	인구(명)
제주 城內	10	31
조천리	2	2
금녕리	1	2
서귀포	6	19
모슬포	2	5
성산포	2	7

자료: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2)』, 제주도.

일제강점기에 동일 행정구역이었던 전남에서 제주화교가 차지하는 비중역시 1936년 전 성기 까지 지속적인 확장세를 유지하였다. 1936년 기준으로 제주화교의 비중은 10.2%로서 전남 주요 지역 중에서 목포, 광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으며, 전남 대부분의 지역에 화교가 거주했던 1920년에 비해 다른 지역은 감소하거나 정체를 보인 반면 4.7%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기간 중 화교인구가 3.3배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 수준을 보였다.

<표 4> 전남 주요 지역의 화교인구와 비중 추이(명,%)

구분	목포	광주	순천	여수	나주	영광	장성	보성	제주	계
1920	146	77	41	31	64	37	35	46	28	505
비중(%)	28.9	15.2	8.1	6.1	12.7	7.3	6.9	9.1	5.5	100
1936	239	223	87	40	47	60	65	60	93	914
비중(%)	26.1	24.3	9.5	4.4	5.1	6.6	7.1	6.6	10.2	100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년도

2. 경제활동

1) 직업분포

제주화교는 입도이후 초기에는 목공, 석공 등 건축 기술자와 단순 노동자 중심이었으나 점차 포목판매와 잡화상과 음식업, 호떡집 등 상업 종사자가 늘어났다. 1925년 직업분포를 보면 상업부문이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동자를 포함한 공업부문으로 이 두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비슷한 시기인 1923년 전국화교의 직업분포와 비교하면 잡화와 포목업, 중국요리와 호떡을 포함한 상업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목공과 석공, 단순 노동 등 공업부문이라는 점은 공통적인 현상이나 전국화교 직업 중 농업부문의 비중이 세 번째를 차지한 반면, 제주화교의 경우 농업 종사자가 한명도 없어 차이점이 존재한다. 제주에 화농(華農)이 없었던 것은 다양한 거름을 필요로 하는 채소중심의 화교식 집약농법이 제주의 지역적 여건에 맞지 않았고, 무엇보다 대규모 인구가 밀집된 도시 소비시장이 없었다는 데 기인한다(양세영, 2018: 111).

<표 5> 제주화교의 직업 분포(1925년)

구 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호	인	호	인	호	인
농림목축업	38,254	185,896	4	5	-	-
어업	1,595	5,413	100	204	-	-
공업	315	1,429	16	68	3	7
상업 교통업	996	4,511	110	323	16	52

공무자유업	415	1,823	90	348	-	-
기 타	190	5,020	34	154	-	-
무직,불상	60	223	-	-	-	-

자료: 조선총독부, 1929, 『생활상태조사(2)』, 제주도.

2) 상업활동

당시 전국화교의 핵심 업종이었던 상업은 포목업과 음식업이 주종을 이루었다. 먼저 포목상들이 들어왔고, 거래활동과 인적교류가 활발해지자 음식업이 성행하게 되었다. 면포, 견직물, 마포 등을 판매했던 포목업은 대부분 인천의 도매상이 중국 상해로부터 수입하여 전국에 보급하는 형태였다. 1882년부터 시작된 초기 국내 도래 화교는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력을 갖춘 면포, 마포, 견직물(비단) 판매에 주력하였다(왕은미, 2013: 71). 이런 측면에서 제주에도 소비수요가 늘어나자 내륙을 거쳐 유입된 소규모 포목상 또는 포목을 중심으로 한 잡화상이 진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에서 초기의 화교 포목업이 소규모 형태 또는 전문 포목점이 아닌 잡화점 형태로 영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면담결과(허00), 일제 강점기 초기의 제주에는 값비싼 비단이나 모시삼베를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층이 그리 넓지 않아 대규모 포목상이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유통망에 있어서도 전남지역 포목 도매상이 집중된 목포에서 행상을 파견하거나 현지 소매 잡화상에게 도매로 제품을 공급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기록상 확인된 최초의 상점은 영순흥(永順興)(1915년 설립)으로 제주면 삼도리에 포목을 취급하는 잡화점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대표자는 당시 제주 유지인 고계조(高啓祚)로 되어 있으나 이는 외국인이 상호등기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기에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 “영순흥”은 전형적인 중국 상점명인데다¹³⁾ 당시 제주도내 한국인 잡화 상점은 “박종실 상점”, “최윤순 상점”, “정여호 상점”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활용하거나 대흥상회(대표 최정숙)등과 같이 상회라고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1920년 이후 제주 인구가 급증하여 소비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적인 포목 상점도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목포의 신성호(新盛號) 지점(支店)이 1920년대(1925년 이전 설립 추정)에 성내에 지점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견직물, 주단, 마포, 면포 등을 판매했다.¹⁴⁾ 신성호는 목포에 본점을 둔 호남 유수의 포목 도매상으로 연 매출이 1928년 기준

12) 조선총독부 관보, 1915년 4월 1일자.

13) 비슷한 예를 들면 초기 화교무역상으로 유명했던 源盛興, 포목점인 同順興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4) 每日申報, 「신성호 개업」, 1926년 7월 18일자.

50만원 수준이었으며, 제주지점은 성내에 위치하고 담벽교(譚璧橋)가 대표였다. 신성호 본점의 대표자인 王國詳은 당시에 목포는 물론 호남 일대의 경제 및 금융활동을 지배하는 독점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졌으며 그는 이를 기반으로 일본인 상인들과도 거래를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일본인과 합자로 주물공장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경성상업회의소, 1929: 28; 양세영, 2019: 293).



[사진 1] 신성호 제주지점 사진¹⁵⁾

매일신보(1926년 5월 27일자)에 따르면 1926년 5월 25일 제주 성읍내에서 대화재가 일어나 화교 상점 2개가 전소 되었는데, 주인인 陳世好는 2만원, 王振武는 7천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금액으로 볼 때 당시 지방 상점중 포목업(잡화상 겸업)이 아니고서는 그런 규모의 사업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들도 포목상으로 추정된다(양세영외, 2019: 25). 따라서 1920년 중반 경에는 제주에도 포목업체들과 잡화상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이는 내륙의 도매상이 지점을 설치할 정도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면담 결과(최00, 허00)에 따르면 1920년대에는 서귀포와 성산포 등에도 포목점이 존재한 것으로 나타나 성내에서 제주 각 지역으로 포목점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¹⁶⁾

15) 국내 화교사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 포목상의 실제 사진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포목점 내부가 생생하게 드러난 동 사진은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상점 간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으며, 왼쪽이 대표자인 담벽교로 추정된다.(조선총독부, 1929: 263)

16) 허00의 부친인 허경환은 1925년에 제주로 이주하여 포목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제주도 유입 동기 역시 성산포에서 이미 포목업을 하던 외가친척의 권유였다고 한다.

한편, 포목, 잡화 등 상업활동과 노동자의 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중국 음식점이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 음식점은 그 규모와 파는 품목에 따라 중국요리점, 중국 음식점, 호떡집의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식단 규모가 크고 연회가 개최될 정도의 수준인 중국 요리점은 드물었고, 대부분 중국음식점과 호떡집이 주류를 차지하였다. 호떡과 간단한 중국음식을 파는 소규모 형태에서 출발하여 중국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요리점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조선총독부, 1924a: 62-63). 제주에서 중국 음식점이 언제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국요리점은 1920년대 제주 성내 대로동(城內 大路洞)에 위치하고 산동성 모평현 출신 노수정(盧壽亭)이 주인이었던 상호 불명의 식당이었다.¹⁷⁾ 1931년 만보사건 당시 상황을 정리한 국가기록원 소장자료에도 서귀포 1곳, 대정면에 1곳의 중국 음식점이 피해자로 나타난다.¹⁸⁾ 이들 음식점은 면담결과(최00, 허00, 왕00)에 의하면 호떡, 만두나 국수류를 파는 소규모 중국 음식점으로 보인다.¹⁹⁾ 제주화교 음식점도 국내 중국 음식점 발전의 일반적인 형태대로 호떡집, 소규모 음식점이 먼저 시작되어 점차 중국음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소수 대형 요리점이 등장한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3) 목공과 석공, 단순노동

국내에 유입된 화교 목공과 석공은 근대식 적벽돌 건물과 주택 공사에 있어 국내 노동자보다 기술력이 우수한 데 비해 임금은 낮아 시공사들이 선호하였다. 제주로 이주한 목공과 석공 기술자들 역시 이러한 특성에 따라 시공사를 통해 제주도청(濟州島廳) 등 공공 건물건립과 제주도립병원, 항만 및 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다. 면담결과(왕00, 허00)에 의하면 제주 중앙성당(1930년), 제주읍사무소(나중 제주시청, 1930년), 제주 북국민학교 등도 화교가 시공 또는 보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⁰⁾ 1930년 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에는 벽돌 조적공 3명, 목공 69명, 석공 11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 제주화교 목공과 석공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17) 중외일보, 1929년 8월 3일자.

18)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 1932, 「鮮內에 있는 支那人 排斥事件의 概況」, 285쪽.

19) 면담대상자인 최00에 의하면 1930년대 서귀포 솔동산에 그의 조부 崔厚聲이 중국 음식점 興成園을 개업하였는데 간단한 국수의 음식을 판매하였다고 하며, 王00에 따르면 부친 王亭春이 1918년에 제주에 와서 구좌면 김녕리에서 호떡집 형태의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고 한다.

20) 허00, 왕00에 따르면 이러한 사실은 제주 화교들에게 의해 구전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표 6> 전라남도 건축관련 직공의 분포(1930년)

구 분	청부업자	벽돌조적공	목공	석공
전라남도	0	3	69	115
전국 계	46	119	2,791	1,279

자료: 조선총독부, 『소화5년 조선국세조사보고서』

1926년 제주 산지향 개발로 인한 목공과 석공은 물론 단순 노동자의 유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단순 노동자들의 이주가 늘어난 것은 임금수준이 한국과 일본 노동자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준인데 비해 공사에 대한 성실성이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이정희, 2018: 596).

IV. 정치·사회적 변동과 과급영향

1. 배화(排華)사건의 영향과 대응

1920년대 후반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교에 대한 배척운동은 재만(在滿) 조선인에 대한 중국인의 박해 소식이 촉발요인이었으며, 1920년대 이후 물밀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중국 노동자들과 국내 노동자간 인력시장에서의 갈등이 구조적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박정현, 2014: 105-106). 전국적인 배화사건은 1927년에 처음 발생하였는데, 재만 조선인에 대한 박해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반발로 발생하였다. 먼저 전국 각지에서 재만동포옹호동맹(在滿同胞擁護同盟)이 조직되어 재만동포의 권익을 수호하고 만주당국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평화적으로 시작된 운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흥분한 주민들이 화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점을 공격하는 등 소요사태로 발전하였다. 이리에서 시작하여 군산, 전주, 서천, 김제 등을 거쳐 인천까지 확대되었으나, 제주까지는 확대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제주 지역사회가 화교에 대해 온건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濟州道誌(제주도, 1982: 399)에 따르면 제주 지역사회는 재만동포의 핍박에 대해 1927년 12월 초 제주청년회, 제주 기자단, 제주기독교회, 산지청년회, 제주부인회, 제주 여자청년회, 제주학우회,

제주보교동창회, 제주음사(吟社)가 연합하여 재만동포옹호동맹의 발기대회를 개최하였고, 대응 기본방침과 실행방침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기본방침은 (중국 및 도내 중국인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은 절대로 피하고 온건한 수단으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실행방침으로는 ①조선총독부에 진정할 것 ②재경 총동맹과 제휴하여 중국 관계당국인 북경정부 경성영사관, 봉천 및 길림성에 항의할 것 ③재제(在濟) 중국인의 노력을 촉진시킬 것 ④ 재만 조선인 구축대책강구회에 격려문을 발송할 것 ⑤물질적으로 동정할 것 ⑥ 옹호강연회를 개최할 것이었다. 1927년 배화사건과 이후의 제주도민의 활동은 처음으로 제주 화교에 대해 조직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동향으로 평가된다. 특히, 제주 화교에 대한 온건한 행동을 유도하고, 화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본국 정부와 영사관 등에 재만동포에 대한 구축 움직임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촉구했다는 점에서 제주도민과 화교간의 갈등을 예방하는데 기여했다고 보이며, 제주 각 사회단체가 제주 화교 사회와 조직적 차원에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

1931년 7월 만주 장춘 근교에서 발생한 만보산 사건은 국내 일부 언론이 조선인의 피해를 과장 보도함으로써 많은 국내 화교 사상자를 발생시킨 국제적인 사건으로서 폭력을 동반한 화교배척 운동이 전국을 휩쓸었다. 전국 주요 도시로 폭동이 확산된 가운데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는 1927년 배화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서 사망 127명, 부상 393명에 이르렀으며, 특히 피해가 가장 컸던 평양은 사망자가 94명을 넘었다(정세윤, 2003: 214). 제주 역시 1927년과는 달리 공식 기록상 서귀포의 화교 음식점이 습격당하는 등 2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사상자가 없었고 매우 경미한 피해로 끝났다는 점이 전국적인 상황과는 다른 양상이었다. 이렇듯 제주화교 사회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피해를 받은 것은 먼저 1927년 배화운동시 제주 각 사회단체와 화교사회간 소통과 협력의 경험이 작용하여 제주도민과 화교간의 대립이 격화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제주의 지리적 특성상 내륙의 허위 전언들이 상당부분 차단되었던 상황이었으며, 노동시장 역시 화교 노동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소수인데다 제주 노동자가 대거 일본으로 진출하여 화교 노동자와의 갈등이 거의 없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만보산 사건이 준 타격은 적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국적인 배화 분위기에 신변상 불안을 느낀 화교들이 본국으로 급히 귀환함에 따라 인구가 <표 7>에서 보면 1930년 90명에서 1931년 70명으로 감소하였다. 물론 이러한 감소추세는 전국 화교인구의 평균 감소율인 45.7%을 하회하는 22.2%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보산 사건이 제주 화교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인 상업활동의 위축을 들 수 있다. 중국남경정부외교부공보(石源華, 李輔溫 編, 1995: 844)에 따르면 1934년 제주지역의 화교 직업으로 포목상 4명 외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아, 당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음식점과 목공, 석공들의 철수 또는 활동의 위축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만보산 사건과 중일전쟁 이후의 화교 인구변화

(단위: 명)

구분	서울	인천	군산	목포	부산	평양	청진	신의주	제주	전국
1930	5,987	2,427	638	305	504	1,995	1,348	7,487	90	67,794
1931	3,420	1,469	580	198	329	655	903	4,733	70	36,778
증감(%)	-42.8	-39.4	-9.0	-35.0	-34.7	-67.1	-33.0	-36.7	-22.2	-45.7
1936	8,300	3,265	571	239	1,080	1,833	1,011	6,439	93	63,981
1937	2,114	805	194	74	102	871	873	5,748	46	41,909
증감(%)	-74.5	-75.3	-66.0	-69.0	-90.5	-52.4	-13.6	-10.7	-50.5	-34.5

자료: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각년호. 양세영(2019) 논문에서 수정 재인용.

2. 중일전쟁과 전시체제의 영향

만보산 사건의 영향으로 화교인구는 1932년 6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을 흡수하고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서 1936년에는 해방 전 가장 많은 인구규모인 93명 수준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회복세는 1937년 중일전쟁 발발로 끝나고 만다. 중일전쟁은 만보산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중일전쟁이 본격화됨으로서 국내화교는 적성국민의 신분이 되었고, 대중(對中)무역도 중단됨으로서 커다란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어진 태평양 전쟁과 그로 인한 전시체제 돌입은 전국화교와 마찬가지로 해방 전까지 제주화교 사회에 침체기를 가져다 주었다.

먼저 중일전쟁은 상당수 제주화교의 본국 철수를 가져와 만보산 사건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인구를 감소세로 전환시켰고 경제활동을 크게 약화시켰다. 나아가 화교사회의 구성과 활동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중일전쟁 이후 제주화교의 인구변화는 <표 7>에

서 보는 것과 같이 1937년에 전년대비 50.5 %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귀환자가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²¹⁾ 만보산 사건과는 달리 전국화교 평균 감소율보다 높은 수준의 인구 감소를 기록하여 중일전쟁이 제주화교에게 미친 타격이 훨씬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1938년 들어 일시적으로 인구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다시 감소세로 전화하여 해방 직전에는 30명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면담 결과(왕00, 허00)에 따르면, 일부 소규모 잡화상과 군수 통조림공장(한림 옹포리) 노동자만 남고 주요 포목상과 중국 요리점 등은 본국으로 철수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적 기반의 취약은 화교사회를 매우 위축시켰다.²²⁾ 중일전쟁 이어 발생한 태평양전쟁과 이로 인해 강화된 전시통제 체제는 그나마 명맥을 이어온 제주화교의 경제 활동을 마비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다. 모든 물자를 군수산업에 집중함에 따라, 밀가루 등 식재료 배급제 시행, 가격의 인위적 통제, 노력동원 등으로 경영활동을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양필승·이정희, 2004: 53)

일제는 중일전쟁이 발발한 후인 1937년 12월 점령지에 괴뢰정부인 중화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내 화교단체들을 친일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로 변화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따라 1920년대 설립된 濟州中華商會²³⁾는 1938년 3월 10일 濟州中華新民會로 개칭하고 親日 南京國民政府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경성지방법원검사국, 1938b). 1940년 3월 왕정위 정권이 수립되자 이러한 압박은 한층 강화되어 각 호마다 신정부의 깃발을 게양하고 중화新民회를 중심으로 신사 참배와 궁성요배를 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잔존 제주화교는 내면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으리라 판단된다.²⁴⁾ 외형적으로는 일제의 패망 전까지 친일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이는 생존 차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으며 제주화교만이 아닌 당시 한반도 화교가 동일하게 경험한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했다.

21) 每日申報, 1938년 1월 5일자.

22) 목포의 경우 중일전쟁 이후 현지화 되었거나 일본인과 혼인이나 사업상 관계가 있는 화교 외에 주요 포목점과 잡화점, 중국 음식점을 영위한 대다수의 화교들이 중국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1928년 20개의 포목상점이 2개로 줄었고, 중국음식업도 1923년 12개에서 4개로 줄어드는 등 화교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양세영, 2019: 307-308).

23) 정확한 설립 시기는 문헌 기록이 없어 특정할 수 없으나, 인접지역인 목포, 광주, 장성 등이 비슷한 시기에 중화상회가 연쇄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주 중화상회의 설립연도도 이들 지역과 같이 1927년-1928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4) 每日申報, 1938년 1월 5일자.

V. 결론

“바닷물 닿는 곳에는 화교가 있다”는 말처럼 화교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진출해 있다. 국내 화교는 근대의 역사적 공간에서 한국인들과 생활을 공유하였으나 그동안 소외와 배타의 대상이었으며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무관심이 지속되었다. 이제 글로벌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내 화교에 대한 역사적 접근은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인식하고 새로운 공존의 틀을 만드는데 있어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은 내륙과 멀리 떨어져 국내 화교의 진출이 늦게 이루어졌으리라는 인식과는 달리 공식기록에 의하더라도 1909년에 이미 화교가 이주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꾸준한 성장과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 화교사회를 형성하고 제주도민과 교류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자본유치와 관광개발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맞물려 그동안 거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주화교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일제강점기 제주화교들의 활동이 보여준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주화교의 효시는 포목상과 잡화상이 주도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목공과 석공 등 기술노동자였으며 이후 소규모 포목상과 잡화상이 진출하였다. 그 시기도 대한제국기로서 최소 112년 전부터 화교들이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교통여건과 상업활동 기반, 거주여건이 잘 형성된 인천, 원산, 부산 등 기존 개항장을 나누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찾아 과감하게 원격지인 한반도 남단 제주까지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추진한 것은 상당한 개척정신의 산물로 평가된다. 둘째, 전성기인 1930년대 초반에는 100명에 가까운 화교들이 거주하며 제주 중화상회를 중심으로 화교사회가 활성화되었고, 제주지역 주민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는 점이다. 포목점과 음식점 영업, 그리고 제주지역 주요시설 건축과 사회간접 자본 개발 공사에 대한 참여를 통해 경제적인 기여를 하였고, 제주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전국적인 배화운동에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다. 셋째, 1931년 만보산 사건과 1937년 중일전쟁과 같은 정치사회적 격변기는 제주 화교사회에 타격을 입혔고, 특히 중일전쟁은 결정적 충격을 가해 상당수 화교가 본국으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화교사회는 위축되었고, 해방 후 새롭게 이주한 화교들과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현상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시기 잔류 제주화교는 친일을 강요당하는 등 제주지역 주민과 동일한 고통을 공유하였다.

본고는 그 동안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제주화교를 대상으로 기원과 초기 이주의 성격, 일제 강점기의 생활양상을 조명함으로써 지역화교 연구의 지경의 확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지만 몇 가지 한계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연구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관련문헌과 사료 부족으로 파악이 어려웠던 제주화교의 주요 인물과 상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다 생생한 생활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특히, 1-2세 화교들이 거의 사거하거나 노령으로 증언의 확보가 어렵고, 보관하고 있는 사료역시 멸실되고 있어 이러한 연구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본 연구가 일제 강점기 제주화교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생활양상에 초점을 두고 있어 화교단체, 교육 문화 및 풍속 등 사회문화적 생활양상에 대한 접근이 요청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문헌탐색은 물론 더 많은 면담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크다. 제주 화교사회의 변곡점이 되었던 만보산 사건과 중일전쟁기의 상황도 심층연구를 통해 별도의 과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와는 양태가 다른 해방 후 제주 화교의 활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앞에서 제시하였던 역사적 단절성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제주 성내, 서귀포와 성산포 등 주요 지역별로 화교의 활동을 정리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초 사료와 면담자료를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1. 논저

- 강진아, 2011, 『동순태호』, 경북대학출판부.
- 강창룡 외, 1997, 『19세기 제주사회연구』, 일지사.
- 경성상업회의소, 1929, 「朝鮮における外國人の經濟力」, 『朝鮮經濟雜誌』 159(3월호).
- 경성지방법원검사국, 1938a, 「치안상황 44보(1.8), 鮮內 중국인의 신정권참가상황」.
_____, 1938b, 「치안상황 44보(6.10), 재류 중국인의 동정」.
- 국가 기록원, 1932, 「鮮內에 있는 支那人 排斥事件의 概況」(관리번호 CJA0002328).
- 김경학, 2012, 「한국 화교의 초국가적 성격과 전망-광주지역 화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 제51집.
- 김 승, 2014, 「일제강점기 부산화교의 존재형태와 사회정치적 동향」, 『지역과 역사』 34호.
- 김승욱, 2011, 「19세기 말~20세기 초 仁川의 운송망과 華僑 거류양상의 변화」, 『중국 근현대사연구』 50.
- 김영신, 2005, 「日帝時期 在韓華僑(1910~1931)-仁川地域 華僑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4.
- 김태웅, 2010, 「日帝下 群山府 華僑의 存在形態와 活動樣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2, 역사문화학회.
- _____, 2012, 「일제하 조선 개항장 도시에서 화교의 정주화 양상과 연망의 변동: 仁川, 新義州, 釜山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26집.
- 김희신, 2014, 「화교, 화교 네트워크와 주한 사관」, 『중국사연구』 제89집.
- 목포부, 1930, 『목포부사』
- 문미라, 2009, 「근현대 화교의 제주도 정착과정과 사회적 위상」, 제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정현, 2014, 「1927년 재만동포옹호동맹의 결성과 화교배척사건」, 한국중국학회, 『中國學報』 第 69輯.
- 박현옥·박정동, 2003, 「한국화교(인천화교)의 경제활동 및 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IDI 연구 보고서』 2003-11, 인천발전연구원.
- 배종태·차민석, 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중소기업연구』 31(1).
- 송승석, 2010, 「한국화교 연구의 현황과 미래」, 『중국현대문학』 제55호.
- 신재경, 2000, 「제주도 華僑의 어제와 오늘」, 오사카 한국화교연구회 발표자료.
- 양세영, 2018, 「개항기 및 일제 강점기 전기(前期, 1893~1924년) 목포화교의 경제·사회적 활동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1권 제2호.
- _____, 2019, 「일제강점기 정치·사회적 변동과 목포화교 사회의 대응에 관한 연구」, 『지방사와 지방문화』 22권 2호, 역사문화학회, 279-321.
- _____, 2020, 「군산과 목포화교의 비교연구」, 『호남학』 제68호.

- 양세영·심규호·후림·신재경·김은영·김규태, 2019, 「제주화교 역사 및 문화유산의 발굴에 대한 연구」, 『제주학 연구』 67, 제주연구원.
- 양필승·이정희, 2004,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 삼성경제연구소.
- 왕은미(송승석 옮김), 2013, 『동아시아 현대사 속의 한국화교』, 학교방.
- 이덕훈, 1997, 「화교기업의 기업가적 특성과 문화」, 『생산성논집』 11-2.
- 이영권, 2005,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 이옥련, 2005, 『근대 한국 화교사회의 형성과 전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은상, 2016, 「원산화교와 배화폭동(排華暴動)」, 『中國近現代史研究』 第72輯.
- 이정희, 2005, 「20세기 전반기 대구지역 화교의 경제적 활동」, 『대구사학』 80집.
- _____, 2005, 「植民地朝鮮における華僑經濟に関する研究(1905年-1930年) -朝中貿易を中心に-」, 『京都創成大学紀要』 5(1).
- _____, 2016, 「1927년 조선화교배척사건의 경위와 실태- 인천화교배척사건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第135輯.
- _____, 2017a, 「조선화교의 중화요리점 연구-1880년대~1920년대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114집, 한국사회사학회.
- _____, 2017b, 「조선 화교의 성당건축 시공 활동(1880년대~1930년대) -서울과 대구를 중심으로-」, 『교회사 연구』 제51집.
- _____, 2018a, 『화교가 없는 나라』, 동아시아.
- _____, 2018b, 『한반도 화교사』, 동아시아.
- _____, 2019, 「일제강점기 전라북도 지역의 화교배척사건-익산을 중심으로-」, 제5회 익산학 심포지엄 자료, 1~14.
- 이정희·송승석, 2015, 『근대 인천화교의 사회와 경제-인천화교협회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學古房.
- 이창호, 2008, 「한국 화교(華僑)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의 공간-인천 화교의 관시(關係)와 후이(會)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제14권 제1호.
- 장세윤, 2003, 「만보산 사건 전후 시기 인천 시민과 화교의 동향」, 『인천학연구』 2-1호.
- 제주도, 1982, 『제주도지』 상권.
- _____, 1993, 『제주도지』 제2권.
- 제주특별자치도, 2019, 『제주특별자치도지』.
- 제주북초등학교, 2009, 『제주북초등학교 100년사』.
- 제주발전연구원, 2013, 『제주근대 역사문화시설의 문화자원화 방안』.
- 조선총독부, 1924a, 『朝鮮に於ける支那人』.
- _____, 1924b, 『朝鮮部落調査報告：火田民來住支那人』.
- _____, 1929, 「생활상태조사.(其2) 濟州島」,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39편.
- _____, 1934, 『조선총독부 昭和5年 朝鮮國勢査報告』.

_____, 1937, 『조선총독부 昭和12年 濟州島勢要覽』.
_____, 각 년,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_____, 1915, 『조선총독부 관보』
조세현, 2013, 「식민지도시 부산의 ‘시나마찌(支那町)’와 화교들」, 『역사와 경계』 제87집.
조영운, 2013, 「1920-1930년대 빈민실업문제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대응과 중국인 노동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진유광, 2012, 『중국인 디아스포라』, 한국학술정보.
盧冠群, 1956, 『韓國華僑經濟』, 臺北: 海外出版社.
石源華 ; 李輔溫 編, 1995, 『中國南京國民政府外交部公報:大韓民國關聯史料 上』, 서울: 高句麗
楊昭全·孫玉梅, 1991, 『朝鮮華僑史』.
華僑志編纂委員會, 1958, 『韓國華僑志』.
小田內通敏, 1925, 「朝鮮に於ける支那人の經濟的勢力」, 『東洋講座』.

2. 기타

每日申報, 1926년 7월 18일자.
_____, 1938년 1월 5일자.
제주신보, 1950년 8월 17일자.
조선신문, 1926년 7월 17일자.
중외일보, 1929년 8월 3일자.

<면담대상자>

- 1.楊00: 원적은 산동성 내주현, 제주화교협회 감사장, 양낙산의 조카, 제주 거주, 음식업
- 2.楊00: 원적은 산동성 내주현, 제주화교협회 회장, 양낙산의 일가, 제주 거주, 음식업
- 3.王00: 원적은 산동성 래양현, 초기 이주화교의 2세, 제주 거주, 음식업
- 4.許00: 원적은 산동성 황현, 초기 이주화교의 2세, 제주 거주, 상업
- 5.崔00: 원적은 산동성 모평현, 초기 이주화교의 3세, 인천으로 이주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Chinese Society in Jeju and its living activities

– Centered on the initial migration process and economic activity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

Yang, Se-Young*

This study aimed at illuminating the origins of overseas chinese in Jeju(Jeju Hwagyo), the process of migration and their living activitie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As a result, the scope of local Hwagyo research is expected to expand. The main facts revealed through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igrants were technology workers, such as carpentry and stonework, unlike other regions, and later small-scale textile shops and miscellaneous goods stores entered Jeju. The migration period of Jeju Hwagyo is presumed before 1909. Instead of the open port city with good conditions, it is considered to be considerable pioneering spirit for them to come to the remote island of Jeju. Second, in the early 1930s, nearly 100 Hwagyo lived, and the Chinese society was active, and exchanges with Jeju residents were also brisk. Economic exchanges were made through the business of textile store and Chinese restaurants, and contribution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major facilities in Jeju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ere also made. Third, during political and social upheaval such as the Manbosan incident in 1931 and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the Jeju Chinese community was hit, especially the Sino-Japanese War, which resulted in the departure of many Chinese from Jeju. As a result, the Chinese society shrank. In addition, the remaining Jeju Hwagyo during this period shared the same pain with the residents of Jeju, such as being forced to work pro-Japanese.

In the future, more vivid living history needs to be restored by collecting detailed information on major figures and shops of Jeju Chinese, and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historical connectivity between Jeju Chinese community of this period and after liberation.

* Professor, Sehan University

제주 화교사회의 형성과 생활양상에 관한 연구
- 초기 입도 과정과 일제 강점기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

Key Words : Jeju overseas Chinese(Jeju hwagyo), Japanese colonial era, Sino-Japanese War, migration, living activities

교신 : 양세영 04065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3길 32,
마포웨스트리버 태영 데시앙 102동 1303호
(E-mail: wdcyang@naver.com)

논문투고일 : 2021. 01. 15

심사완료일 : 2021. 01. 28

게재확정일 : 2021. 02. 07